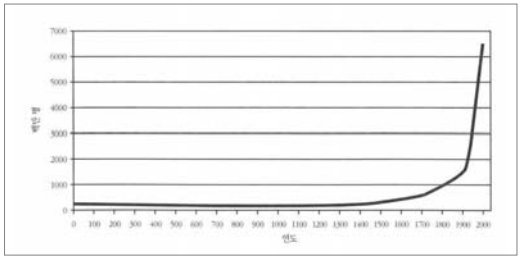
교회 안에 들어온 **자본주의 세계관**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있다. 물론 신앙이란 신비적인 요소도 있어 비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사단은 근본적으로 빛의 자녀를 싫어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의 비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상식 이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적인 논리의 지배를 받아 세상과 구별도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자본주의 세계관의 영향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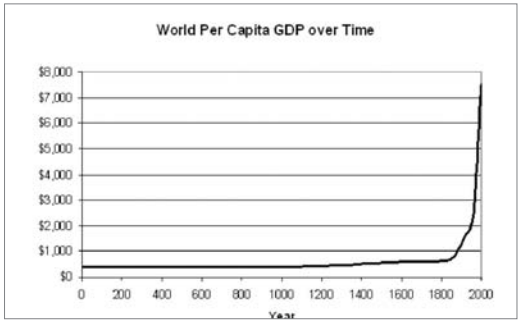
자본주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언급한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인류는 자본주의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빈곤에서 탈출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1인당 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1800년 경을 기점으로 소득이 거의 수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이렇게 자본주의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빈곤의 덫에서 인류를 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 논리와 실용주의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영역에도 이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교회에서 발견되는 자본주의 모습을 살펴보자.

[그림 1] 2000년간 1인당 소득변화



[그림 2] 세계인구변화



1. 진보의 우상성

자본주의 사회는 일반적으로 공리주의를 수용한다. 공리주의는 선악의 근거를 효율성에 두는 것이다. 즉 유용한 것이 선한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한다. 네덜란드의 경제사학자 하우즈바르트는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가진 진보의 우상성을 지적했다. 19세기에 계몽주의 시대의 마지막 사조인 진보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류가 유토피아로 진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진보가 가져오는 핑크빛 미래에 대해서 좌절했지만, 여전히 인류는 진보의 노예였다. 기술진보와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공리가 증진된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공리주의가 실용주의로 발전하였다. 실용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주의는 가치가 실용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행복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 즐거움의 기준이 실용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박순용목사는『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에서 이러한 실용주의는 찰스 피니와 윌리엄 제임스에 의해서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고 설명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효용성이 있어야 진리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교회가 아무 비판 없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연구소를 세워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웠고, 1965년에 미국 풀러 신학교의 세계선교학회와 연합함으로 풀러신학교가 교회 안의 실용주의 확산을 주도했다. 특히 그 대학의 교회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가 실용주의 전파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번영신학으로 발전했는데, 후에 조엘 오스틴 등을 통해서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1)]

이러한 실용주의의 영향은 한국교회에도 쉽게 볼 수 있다. 가난보다 부를, 낮은 지위보다 높은 지위를,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한국교회에도 팽배하다. 김종일목사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 이름을 '동네작은교회'라고 짓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영국 버밍험에서 유학생들에게 어느 교회에 다니다가 왔느냐고 물으면 큰 교회에 다니던 청년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반면에, 조그만 교회에 다니던 유학생들은 대부분 "모르실거에요.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라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척하면 교회이름을 '동네작은교회'로 하리라 마음먹었다고 한다. 귀국 후 교회 개척하고 총회에 등록할 때 담당자가 교회 이름을 보더니, '동네큰교회'면 모를까 교회 이름이 이게 뭐냐고 나무랐다고 한다. 그래도 총회에서 등록은 받아주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교인들이 20명 쯤 모였을 때, 일본 선교여행을 갔다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 우연히 식당에서 다른 교회팀을 만나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고 하니 '큰 교회'라고 해서, 다시 교회 이름을 물어보니, "저희 교회 이름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큰교회'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고 해서 "동네작은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하자, 상대방이 다시 한 번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네작은교회'에서 왔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큰 교회라면 많이 모이겠네요. 교인이 몇 명이세요?"라고 묻자, '큰교회'는 교인이 22명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한참 웃었다. 큰 교회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때 세계의 15대 대형교회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교회가 한국에 특별히 많은 모양이다.

미국 교회도 실용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왜 유독 이렇게 한국 교회는 큰 것을 좋아할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장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25전쟁 후의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잘 살아보세'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는데, 교회도 이 영향을 받았다. 1970-80년대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경제성장이 곧 선이라는 자본주의적 생각에 한국교회도 강하게 사로잡혔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사는 현세주의가 신앙의 목표가 되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에 교회도 함께 성장했다. 6.25 전쟁 이후 천막교회에서 외친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축복을 받으라"는 소위 삼박자 구원이 기독교를 현세적으로 만들었다. 기독교뿐만 유교, 불교 등 한국 종교의 공통적 특징이 현세주의이다. 진흙 밭에 뒹굴어도 이생이 낫다고 하는 현세주의가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주의와 현세주의가 교회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다. 어떤 교회는 큰 건물 지어놓고, 1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표어를 내걸기도 한다. 교단도 교단의 교세확장이 목표이다.

한국 재벌의 형성과정과 대형교회의 형성과정은 시기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형태도 비슷하다. 둘 다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의 독재적 리더십에 의해서 성장했다. 대형화로 만족 못하고 가맹점까지 냈다. 사실 조직을 키우는데는 강력한 리더십이 더 실용적이다.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암묵적인 동의 속에 교회의 공동체성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갔다. 큰 교회가 큰일을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교회를 키우지 못하는 목사는 무능한 목사로 낙인찍혔다. 미국의 교회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80명 미만의 작은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작은 교회들은 열등감에 빠져있다. 목회자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교회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300명 크기의 교회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논리가 교회에 가득하다. 김종일 목사는 영국에서 강사로 오신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에게 교회개척에 대한 조언을 구했더니 본인이 돈이 있거나, 장모가 돈이 많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개척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김종일목사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다고 하며, 그 말이 틀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척을 했다고 한다. 돈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실 나도 유학시절 등을 제외하고는 주로 큰 교회에 다녔다. 80년대 초에 사랑의교회 청년부에서 내수동교회 및 성도교회 출신 청년들과 젊은 옥한흠목사님의 설교에 감격하며 내가 속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자랑했다. 특히 강남개발과 함께 강남과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급격히 들어서면서 교회의 중심도 강남으로 옮겨와서 지구촌교회, 남서울교회, 온누리교회 등 소위 강남 5개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때, 한국교계에서는 교회 대형화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논지에 나는 동의했고 그런 세련된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교회에서 장로로 봉직하면서 요즈음처럼 개척이 힘들다는 시대에 내가 속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큰 것이 좋다는 것을 넘어 큰 교회가 옳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최근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집안에서 자라면서 일가친척 중에 장로와 목사가 많은 환경에서 살면서 나름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교회관이 오류가 많았음을 이제야 절감하게 되었다.

2. 대형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공동체성의 상실

크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큰 것을 좋아하다보니 잃는 것이 많다. 대형화된 교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성령만 안 계신다는 비난도 있다. 함부로 대형교회에는 성령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크기 때문에 잃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성이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지체, 즉 유기체(organism)이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대형교회에서 성도간의 교제란 매우 형식적이었다. 주일예배에 참석해도 아는 사람 만나기 어렵고, 그저 쇼핑몰에서처럼 스쳐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교회에서 마주치는 교인들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 없다. 어쩌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인파에 밀려 인사도 길게 못한다. 장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과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하고 악수하지만,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 교우에 대해서 얼굴 외에는 아는 것도 별로 없다.

이런 대형교회에서는 속사람이 드러날 수 없다. 물론 대부분 대형교회에서는 구역, 셀, 목장, 순 등 갖가지 명칭으로 인위적인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주지만, 그것 역시 형식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소모임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대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주기적으로 구성원들을 섞어주기 때문에 좀 알만하면 구성원이 강제적으로 해체되고 다른 사람들과 또 새 모임을 시작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속사람이 드러나고, 서로 인격이 부딪히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도 함께 준비하고, 각종 사역을 함께 나누고, 각자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하는 일도 서로 알고, 가정사까지 나눌 수 있을 때, 그리고 희로애락을 나누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면서 가족이 되고, 진정한 유기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인격적 만남과 갈등 속에서 성령의 간섭함을 느끼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2) 조직의 문제

시장경제에서는 가격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서 자원과 생산물이 배분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작동되는데 기업과 정부도 중요하다. 기업과 정부의 특징은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손'이라고 부른다. 조직은 가족이나 유기체와 작동방식이 달리,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작동된다. 즉 조직에서 상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유교적 문화에서는 조직의 상부에 있는 사람이 밑의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어렵다.

교회가 원리적으로는 유기체(organism)이지만,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므로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organization)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형화된 교회에서는 조직의 규모도 따라서 커진다. 그러다보면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의 조직원리가 도입되기 때문에 교회가 기업과 비슷해진다.

서창원 교수는 "종교개혁 500년,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 왔나?"라는 강연에서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의 열매 중 하나가 성직매매와 성직자와 평신도간의 구분 철폐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신종 성직매매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중세 교회에서 요직은 고위 성직자들의 인척이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의 섬김을 받았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병폐들을 없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을 천명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직분에 대한 성경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목사와 장로 및 집사로 한정시켰으며, 이는 계급적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 구분만 있을 뿐이라 명언했다.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나라 권속이며, 다만 받은 은사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양 무리의 본이 되기보다 군림하고, 은사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직제에 따른 특권층이 형성되고 있다. 집사와 장로가 계급화 되고, 교회 부동산 부풀리기의 한 일환으로 교회직분이 남발되고 있다고 서창원 교수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순결성은 사라지고 야욕이 드러나 교회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 성직이라는 이름의 종교장사에 열을 내는 속물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그는 통렬한 비판을 했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담임목사다.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자기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한다. 입술로는 주님이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한다. 일간신문의 교회 광고는 의례 교회이름과 함께 담임목사 사진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교회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모든 화환이나 선물에도 담임목사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써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로 가고, 자기 교회와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협동이 안 된다. 작은 교회 목사들도 언젠가는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열망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 간다.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목양을 부목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설교목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목사와 부목사 사이의 관계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변해, 담임목사는 종교사업장의 CEO가 되었다. 하용조 목사가 온누리교회를 두고 스스로 "이것이 뭐 교회야? 재벌이지."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어느 목사의 고백을 들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시면서 왜 교회를 그렇게 재벌처럼 운영 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여기에 유교문화의 영향까지 받아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제왕적 운영은 더욱 심하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 전임사역자들의 무대가 되었다.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전 세계로 방송까지 되어야 하니, 깔끔하고 세련된 예배를 위해서 아마추어들의 서투른 것이 용서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러다보니 성도들은 깔끔하게 준비된 쇼를 구경하러 온 관객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운영이 점점 월급을 받는 전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갔다. 잘 지은 큰 예배당을 좋아하니 교회건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헌금을 구제에 쓰지 못하고 건물유지비와 전임사역자 사례로 지출하게 되었다. 주일에 몇 부 예배 중에 하나 선택해서 주일성수하고 헌금 바치면 구원문제가 해결되는 착각 속에서, 인격의 변화없이 교회생활을 여가생활처럼 즐기는 명목적인 신자만 늘어나게 되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때의 놀라운 부흥이나, 중세 독일의 경건운동, 영국 청교도 운동 등은 모두 평신도들이 주도했으며, 그들이 세계 선교를 담당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교인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믿음이란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관에 젖어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커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축복받기 위해 헌금하고 십일조 바친다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 매뉴얼에는 모든 설교에서 1회 이상 복에 대해서 말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2]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지

배하는 가치관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거부하고,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배척당하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의 자세도 바뀐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 간증도 역경 뒤에 축복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믿음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 불교신자 황우석교수도 부처의 은공으로 죽을병에서 벗어났고, 부처의 뜻을 따라 연구에 매진한다고 간증했다고 한다.[3] 표적을 보았기에 믿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 당시의 무리와 같다(요 6:26).

불경기에는 세상의 필요에 맞춘 위로가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대한 회개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값싼 위로가 대부분이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 위로의 목적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삼아 새 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주었다는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그런 위로다. 이것은 진리와 거룩함을 위해 고난을 인내하고 썩어 없어질 물질에 소망을 갖지 말고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예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

3) 소비주의와 소비자주권에 물든 기독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시장통과 비슷하다. 한국 교인들은 종교소비자가 되어 교회쇼핑을 다닌다. 귀찮게 하지 않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잘 갖추어있고, 문화공간을 포함한 근사한 시설, 목회자의 화려한 이력 등을 갖춰진 큰 교회만 골라 다닌다. 좀 다녀보다가 자신의 기준에 미흡하면 또 옮긴다. 교회 예배 준비나 진행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하고, 자신은 주일성수를 위해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주차안내자의 안내를 받아 넓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입구에서 헌금을 내고 아늑한 예배당에 들어가, 프로들이 준비한 깔끔한 예배를 관람하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고, 내 구미에 맞춘 설교자의 세련된 설교로 마음의 감동도 좀 받고 집에 오면 주일성수의 의무감에서 해방이 된다. 이런 기준으로 교회 쇼핑을 다니므로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어도 대형교회는 늘어난다.

박순용 목사는 이러한 소비주의 경향은 19세기 초 찰스 피니가 기초를 놓았다고 설명했다. 찰스 피니는 "부흥은 기적이 아니며 그저 수단을 바르게 이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구두 판매원 무디가 그 판매 방식을 복음전도에 이용했고, 스스로를 복음의 세일즈맨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복음전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온 소비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음을 파는 상점으로 바뀌었다. 박순용 목사는 복음이 상품이 되고, 죄인이 소비자가 되고, 복음전도자가 세일즈맨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죄인 대신 구도자라는 용어를 쓰고, 비신자 대신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주권이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공급자가 공급하게 된다. 음악도 대중이 많이 찾는 대중문화가 클래식을 밀어냈다. 수준 높은 음악전공자들이 아무리 원해도 수요자가 찾는 것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교회도 소비자인 성도들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니, 설교자는 청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해야 소비자가 만족한다. 소비자가 싫어하는 회개하라는 설교는 가능한 피한다. 기독교 출판도 자기 계발과 성공, 리더십을 다룬 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십일조를 강조한다. 교회의 예배나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많은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들의 사례를 해결하려면 고정적인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물질로 하는데 익숙해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돈 만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 사랑, 마음 등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시간과 관심은 하나님을 떠나있고, 돈만 바치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시간에 자리를 지킴으로써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내고 음악이나 쇼를 관람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성도의 더 중요한 사명은 돈을 버는 것이다. 헌금을 하려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살전4:11)"고 했다. 바울은 후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했다.

중세에는 돈은 더러운 것이지만, 헌금 통에 떨어지는 순간 거룩한 돈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돈이 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벌어야 거룩한 헌금이 된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 여호와께 가증한 것(신 23:18)"이라고 했다. 헌금을 많이 해도 부정한 돈이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어느 검사가 은행돈을 20-30억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추적하니 십분의 일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한다. 횡령자가 십일조를 내셨다. 신자인 그 검사도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십일조로 3억을 헌금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이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하나님 안 걸리게 해 주세요." 아니면, 걸린 다음에 "하나님, 당신도 먹었잖아요."일까? 종교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이 따로 논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짓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관세를 안 물고 들어왔다고 하는 장로도 있다. 교회에 내는 헌금만이 중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각자의 일터에서 흘어져 드리는 삶의 예배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3. 마치는 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질타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영향이 자본주의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왔다는 것이다.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안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기업이 되고, 목사가 CEO가 되고, 복음이 상품이 되고, 성도가 소비자가 된 오늘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앞두고, 다시 한국 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존의 대형교회를 그대로 두고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 몇몇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분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한국 교회에 커다란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1) 박순용, 『기독교 세상이 함정에 빠지다』, 140-142.
2) 박순용, 144.
3) 박순용, 145.

※"함께합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와이드 칼럼으로 "월드뷰"를 신설하여 본지의 칼럼 중 한편을 공동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교회 안에 들어온 자본주의 세계관" 칼럼은 3/28일자 국민일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